

# 장세일 영광군수 1년여 성과 '기초자치혁신 모델' 주목

출산율 전국 1위·정주 여건 개선  
국비 확보 등郡 재정자립도 강화  
'인구 10만 자립도시' 본격 추진



소통 중심의 변화를 이끌어 왔다. 국비 확보, 공모사업 선정, 복지·교육 인프라 개선 등에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실현했으며 6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 예산 6천억원 달성, 에너지 기본소득 시범도시 선정 등 실질적 성과를 냈다. 단기간에 국비·공모·투자유치 등 총 1천137억원 규모의 외부재원을 확보하며, 영광군 재정자립도를 한층 강화했다.

민생복지 확대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버스, 효행수당, 틀니·목욕·부식 지원 등 고령층 대상 정책을 강화했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청년육아나눔터' 개소,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 제정, 출생기본수당 도입 등 정주여건 개선에도 집중했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100만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하고,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지원 확대 등 골목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쌀값 하락 대응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 61억원 지원도 눈에 띈다.

교통·생활 인프라 분야에선 법성-홍농 국지도 4차선 확장 개통으로 원전 인근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고, 불갑산 하이패스 개통, 2시간 재난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에너지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한 자립형 성장 전략이다. 영광군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까지 연계하는 선순환 구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산지소' 전력 소비 원칙과 전력요금 차등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남은 1년은 풍부한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기반으로 '인구 10만 자립 도시'를 향한 지역 주도형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에너지 산업을 고도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장 군수는 "앞으로의 1년은 균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완성하는 시간"이라며 "함께 만드는 영광, 같이 누리는 군민"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영암 농수로 기름 유출...작물 피해 속출 '나몰라라'

송평리 농지 피해면적 22.4ha  
郡·농기센터 등 책임 회피 급급

영암군 한 농가의 농업용 면세유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돼 인근 농가의 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10일 영암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영암 송평리 개인소유 농업용 창고에 설치된 2천ℓ 규모의 기름통이 무너지면서 농수로에 유입돼, 농지 피해면적만 약 22.4ha로 벼 생리 장애, 고사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농수로는 수십 농가가 사용하는 주요 관개로, 기름 유출 이후에도 농업용수 공급이 중단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영암군은 기름 유출과 작물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토양·수질 조사 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기름이 수일째 농수로에 퍼져 흘러들며 논 곳곳에 기름띠가 형성됐고, 벼를 포함한 일부 작물의 잎이 누렇게 변색되는 등 피해 징후가 이미 나타나고 있지만 정작 피해 규명과 현장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책임 소재 파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를 호소하는 A 농민은 "기름이 눈에 보일 정도로 떠다니며 수로를 통해 논밭으로 공급되는 물에 기름이 섞여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기관 하나 나와서 정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행정은 팔짱만 끼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피해 농민들의 수차례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명확한 대응 계획이나 보상 절차에 대한

안내도 없어 책임 회피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영암군과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등 관계 기관들은 정확한 조사 없이 "관할 부서가 아니다, 현재 파악 중"이라며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채 '팔짱만 끼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농가들의 민원 제기 이후 영암읍사무소는 초동조사에 뒤늦게 나섰고, 그마저도 현장만 둘러보고 간 수준에 누가 보상하고, 누가 책임질 것인지 뚜렷한 답변없는 상황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최초 기름 유출 발생 시기가 2주가량 지난 후 기름 유출 신고가 접수돼 피해 규모도 토양 오염 여부도 대한 정확한 조사가 어렵다"며 "피해보상 협의는 최초 기름유출 농가와 경작자들이 직접 협의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완도군은 12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개장하는 가운데 다음달 17일까지 각종 이벤트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해 신지 명사십리에서 열린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 <완도군 제공>

## '치유와 바캉스'...완도 명사십리서 여름 축제 즐기자

내일 개장 '맨발 걷기·크로스핏 대회'  
치맥 페스티벌·EDM 공연 등 다채

고운 모래와 해송 숲, 남해안 대표 휴양지 완도군이 본격적인 피서객 맞이에 나섰다. 10일 완도군에 따르면 12일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가운데 다음달 17일까지 각종 이벤트를 개최한다. 완도군은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모래조각 전시, 비치 발리볼 대회, 플라이보드 쇼, 버스킹 공연 등 '해양치유와 바캉스'를 접목한 풍성한 콘텐츠를 마련했다. 특히 12일 신지 명사십리 개장일에는 '완도,

치유의 파도길을 걷다! 바다를 품다!'를 부제로 전국 맨발 걷기 축제가 열린다. 전국 최대 규모 크로스핏 대회인 '2025 SUFF (Summer Ultimate Fitness Festival)'는 12일부터 이틀간 신지 명사십리(완도리니)에서 열리며 선수, 관계자 등 1천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크로스핏은 박진감 넘치는 운동인 만큼 방문객들은 흥미진진한 경기를 관람하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장일 오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는 '해양치유 치맥 페스티벌'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맥주 바와 잔치 콘셉트의 주막, 푸드 트럭, EDM 파티, 래퍼 공연, 농구 게

임·다트·인형뽑기부스 등을 운영한다. 페스티벌이 열리는 시간대에 교통 혼잡이 예상됨에 따라 오후 5시 완도해조류센터에서 출발, 오후 9시와 11시30분 신지 청와대 펜션(신지면 해양치유길80)에서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기로 했다. 완도군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완도경찰서, 완도해양경찰서, 완도소방서 등과 협력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인명 구조 자격증을 보유한 안전 요원, 환경 정화 요원 등 140여명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올해는 폭염으로 많은 피서객이 완도의 청정 바다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며 "신지 명사십리를 완도해양치유센터와 연계해 피서와 치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웰니스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 함평 돌머리해수욕장 개장 준비 '착착'

18일 개장...31일간 운영

함평군이 돌머리해수욕장(사진) 개장을 앞두고 안전 관리 및 운영 준비를 마쳤다. 10일 함평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돌머리해수욕장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위원장인 강하춘 부군수를 비롯해 함평경찰서와 함평소방서, 군 보건소, 기상청, 목포해양경찰서 등 각 기관 관계자 9명이 참석해 개장 기간 및 운영시간, 안전관리 방안 등 주요 안전을 심의했다. 협의회에서는 18일부터 8월17일까지 31일간

돌머리해수욕장을 개장하기로 결정했으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설정됐다. 개장 기간에는 여름 방학에 맞춰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수욕장 내 안전시설 및 편의시설 준비를 완료하고 안전관리 요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름철 인명사고 없는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참석 기관과 논의를 이어가며 안전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함평=김연수 기자



강하춘 함평부군수는 "많은 관광객이 돌머리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 휴양지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강진 보은산 밴드 물놀이장. <강진군 제공>

## 강진 '반값여행' 시즌2, 시작 첫날부터 대박 질주

사전 신청 하루 만에 868팀 접수  
관광 카드매출·지역상품권 사용 ↑

'강진 반값여행 시즌2'가 시작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얻으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10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재개된 시즌2 첫날에만 868팀이 사전 신청을 마치고 높은 참여 열기를 입증했다. 이 프로그램은 여행 경비의 50%를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전국 최초의 관광 현금 정책으로, 개인 최대 10만원, 2인 이상 팀에는 최대 2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지원 조건도 강화됐다. 관광객이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해야 정산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 확대와 지역 내 소비 확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리고 있다. 사전 신청은 강진 반값여행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가능하며 여행 후 7일 이내에 관

광지방문 인증 사진과 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성과도 뚜렷하다. 지난 6일 기준 사전신청 승인 팀은 3만7천6팀, 정산 승인 팀은 2만6천48팀에 달한다. 참여자들은 강진군에서 약 69억5천만원을 소비했고, 이 가운데 31억8천만원이 모바일 강진사랑상품권으로 환급됐다. 특히 이 가운데 17억4천만원이 다시 지역 내에서 재소비돼 현재까지 총 87억원에 이르는 직접 소비 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정책 효과는 통계로도 입증된다. 한국관광데이터랩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5월 강진군 관광 분야 카드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했고, 지역상품권 사용액은 지난해 상반기 73억원에서 올해 152억원으로 무려 79억원 증가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여행은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니라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민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돌아가는 구조를 설계한 전략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해남군, 확 바뀐 '군민소통의 장' 공감대 향상

읍·면 대화서 군수 직접 브리핑  
질의응답 속 진솔한 대화 진행

해남군이 진행하는 읍·면 대화 내용이, 형식도 확 바뀐 군민소통의 자리로 공감대를 높이고 있다. 1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7일 화원면을 시작으로 14개 읍·면을 순회하는 '해남사랑 미래 공감 투어'를 시작했다. 매년 연초 운영되던 읍·면 대화는 제주항공 사고를 비롯해 대통령 선거 등으로 일정이 미뤄져 올해는 하반기에 실시하게 됐다. 무더운 날씨가 무색하게 많은 군민들의 참여 속에 열리고 있는 읍·면 대화는 확 바뀐 형식과 내용으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직접 브리핑에 나서 군정의 현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군민들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 기존 군수와 내빈들이 상석에 앉아 진행하던 읍·면 대화의 방식에서 단상을 옆으로 배치하고 군수가 자료 화면을 보며 직접 설명에 나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졌다. 이어진 읍·면 권의와 군민들의 질의 및 군수



답변도 예상시간을 훨씬 넘어 진행됐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솔한 대화가 오가 내용면에서도 한단계 향상됐다.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두 시간여 동안 읍·면 대화 내내 서서 진행한 명 군수는 민선 7, 8기 역대 최대의 국정성과를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해남의 변화와 발전을 이끈 군민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하고, 해남의 더 큰 도약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 7-8기 역대 최대의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해남의 미래를 바꿀 다시없는 중대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며 "해남에 살아도 대도시 못지 않은 삶의 질을 보장하는 농어촌의 비전을 실현하는 '농어촌수도, 해남'으로 다시 한 번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